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당선작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할 테니, 응모작의 전반적 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고무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응모작 전반의 평균적 수준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결국 관건은 당선작의 수준이다. 어느 공모전의 권위란 결국 역대 당선작의 권위 외의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올해부터 5·18문학상 신인상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나 응모작의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고 응모작의 전반적 수준도 높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빼어난 당선작을 뽑을 수 있었다. 당선자 자신은 물론이고 5·18문학상의 운영을 돕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는 「달력이 여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외 4편을 응모해준 고은희씨다. 함께 보내준 다른 작품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무 짝을 바라보는 견해들」을 당선작으로 골랐다. 반으로 잘라놓은 무에서 짝이 돌아 나온 것을 보고 “혁명 같다”고 말하는 화자를 내세워 ‘무’와 ‘혁명’ 사이의 유비(analogy)를 유려하게 사유하는 시다. 모범 답안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관찰과 성찰, 메시지와 수사학, 보편성과 시의성 등의 이항(二項)적 요소들 사이의 유려한 상호작용을 시연해 보여준다.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응모자들 중에서 두 명의 심사위원이 따로 또 같이 주목한 분들은 다음과 같다.

이동우씨가 보내준 「기타의 꿈」 외 4편 중에서 「기타의 꿈」이나 「녹슨 하늘」 같은 것들은 ‘노동시’라는 범주로 묶일 만한 작품들이다. 고공 농성을 다룬 「녹슨 하늘」에서 “이젠 하늘마저 비좁다”와 같은 구절은 탄식을 자아내거니와 다른 시들도 울림이 깊다. 그러나 발언의 깊이나 상상력의 넓이가 어떤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아쉬웠다.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답습(踏襲)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들불」 같은 작품은 제목 자체가 80년대식 상투형이거니와, 1982년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다룬 시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써야 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엘리시움」 외 8편을 보내준 정연희씨는 “시멘트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누군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사라진 흔적 같다.”(「엘리시움」)와 같은 멋진 문장으로 독자를 유인하며 시를 시작할 줄 알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고 싶어도/안과 밖이 없는 감옥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원형감옥」)과 같은 표현으로 오늘날의 삶의 정체를 드러낼 줄 안다. 그러나 시 안에 시상을 집중시키는 문장과 흩어버리는 문장이 자꾸 섞이고, 후자들 때문에 시가 늘 일정 분량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시가 다소 산만하다는 인상을 남기고 만다. 친절한 부연이거나 세련된 반복에 불과한 말들을 조금 덜어내면서 시를 더 얹고 날카롭게 버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천문을 빌리다」 외 4편을 보내준 유무이씨는 세상의 많은 힘겨운 존재들을 알아줄 수 있게 긴 헛바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헛바닥」 같은 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타인과 깊숙이 연결돼 있거나 혹은 연결되려고 애쓰는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좀 더 날카로운 통찰력과 독특한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뻗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맹인 안마사 부부를 보면서 “온종일 다른 사람의 멍친 어깨를 풀어줬으니/이제는 자신의 가슴 옹이를 풀어줄 차례라고/연인은 낮아서 더 아늑한 지하 집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식으로 쓰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아닐까.

그밖에도 「바람의 유전자를 보았다」 외 4편을 보내준 이지성씨, 「의문사」 외 4편을 보내준 조연옥씨, 「달을 품은 마을」 외 4편을 보내준 김형미씨, 「나의 로스코 채플」 외 5편을 보내준 전형빈씨 등의 작품을 흥미롭게 읽었다. 조심스럽게 언어를 다루고 또 이를 어떤 틀 안에 가지런히 배열함으로써 아름다운 질서를 구축해보려는 태도가 있는가 하면, 답답한 틀을 깨고 새로운 화법을 개척해서라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담아보겠다는 도전적인 태도도 있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태도를 더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향에의 열정이 비로소 한 사람의 시인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귀한 작품을 보내준 모든 응모자들에게, 함께 문학을 아끼는 벗의 자격으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